

## 역사문헌 고찰을 통한 조선시대 산불특성 분석 Analysis of Forest Fires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Historical Literature Survey

김동현 · 강영호<sup>†</sup> · 김광일\*

Dong-Hyun Kim · Young-Ho Kang<sup>†</sup> · Kwang-Il Kim\*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2011. 2. 25. 접수/2011. 8. 12. 채택)

### 요 약

본 연구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518년 동안 산불발생 및 특성에 관한 기록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역사기록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 등록, 각부청의서존안, 철종행장 등으로 조선시대 왕조별로 산불이 기록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역사기록문헌에서 기록된 산불 내용은 발생 개요, 산불 종류, 산불피해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송전(松田)의 산불예방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역사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건수가 많았던 왕조는 현종(14건)과 순조(13건)로 강풍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최대 산불피해는 순조 4년(1804)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사망자 61명, 민가 2,600호가 소실되었다. 또한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불은 현종 13년(1672)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65명이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산불 발생 원인은 원인미상(42건) > 실화(10건) > 방화, 낙뢰(3건) > 수렵입화(2건) > 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소각, 가옥화재(각 1건)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산불발생은 동해안 지역이 39건(56%)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산불발생은 봄철기간 산불이 46건(7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4~5월로 현재의 산불위험시기와 유사하다. 산불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방화자 및 실화자에 대해서는 유배, 관직박탈, 호시 등의 처벌기록과 관리지역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산불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산불 발생 기간 및 지역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historical records on outbreak and features of forest fires during Chosun Dynasty's 518 years in being and analyzed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archives from Records of the Border Defense Council, The Compilation of Ministry Proposals, Posthumous Records of King Cholchong etc. Forest fires were most prevalent and extreme during King Hyunjong (14 cases) and King Sunjo (13 cases) due to strong wind, and the biggest-ever forest fire broke out in the fourth year of King Soonjo (1804) in the east coast of Korea in Kangwon province. The fire had resulted in 61 fatalities and 2,600 destroyed houses. Forest fire in the east coast of Korea, Kangwon province, in the 13<sup>th</sup> year of King Hyeonjong (1672) is recorded to have caused the highest number of deaths, 65people. The most frequent cause of forest fires during Chosun Dynasty was unidentified (42 cases), followed by accidental fire (10 cases), arson or lightning (3 cases), fire during hunting (2 cases), play with fire by children, destruction of patty fields and dry fields by fire and house fire (1 case respectively). By region, 56 % of forest fires erupted in the east coast (39 cases) and this was followed by the west sea (9 cases), Seoul and central region (8 cases) and the southern part of Korea (7 cases). By season, spring was found to be most vulnerable to forest fire as it accounted for 73 % of the total amounting to 46 cases. Behind were summer (11 cases), winter (6 cases) and autumn (0 case). Specifically, most forest fire broke out on April and May, which is the same as today. Archives and literature indicate that the person who involved in forest fire by

<sup>†</sup>E-mail: kangyho@hanmail.net

accidental as well as arson had to be punished by banishment, expulsion from government office and public hanging. Also, officials in charge of the region that suffered forest fire were subject to reprimand. In conclusion, risk and gravity of forest fires were evident during the Chosun Dynasty as specified in historical archives and share many similarities with today's forest fires in terms of the duration and regional patterns.

**Key words** : Forest fire, Chosun dynasty, Forest fire history, Fire characteristics

## 1. 서 론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울창한 산림은 산악형 지형과 봄철 건조한 기상 등의 원인으로 인해 항상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에 놓여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을 살펴보면, 2000년 4월의 강릉, 삼척, 고성, 간성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해안산불(피해면적 23,794 ha)을 비롯하여 2002년 4월의 청양·예산산불(피해면적 3,095 ha), 2005년 4월의 양양산불(피해면적 974 ha)과 2007년 4월 29일에 경북에서 70 ha를 태운 울진산불을 들 수가 있다. 이들 산불은 주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단순한 산림면적상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낙산사와 같은 주요문화재의 소실을 비롯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실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역대 왕조별로 산불발생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구명해보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참고문헌을 통하여 산불발생과 관련된 사항을 추출한 후 분석하여 당시의 산불발생특성은 어떠했으며, 산불종별, 계절별 특성 및 산불발생위험지역 구분, 강풍과 산불발생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조선시대의 산불특성을 구명해 내고, 당시에 발생한 산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도출해 보고자한다. 또한 산불과 관련된 행정 및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도와 날짜는 현재의 양력으로 변경하여 기술하였으며 원문에 대한 번안문은 음력으로 정리하였다. 미기록된 산불발생일자는 관련문서 분석을 통해 표기하였다.

## 2. 조선시대 산불기록 고찰

조선시대의 역사기록서중 산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각부청의서존안’, ‘철종실록’ 및 ‘철종행장’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각 역사서에 대한 산불발생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원문, 번안문, 해설의 순으로 산불발생건별 상황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산불발생 원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원인미상’으로 기록하였다.

분석한 조선시대 역사기록서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산불기록이 남아 있어 향후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헌 검색 및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 2.1 조선왕조실록

#### 개요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1392)때부터 철종(1863)때까지 472년간에 걸쳐 25대 임금들의 역사를 순서대로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역사기록서이다. 1413년(태종 13년) ‘태종실록’이 처음 편찬되었고, 마지막 실록인 25대 ‘철종실록’은 1865년(고종 2년)에 완성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4권, 888책으로 엮여져 조선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제 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 산불기록

조선왕조 1392년(태조 1년)부터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에서 최초로 기록된 산불발생은 세종 10년(1428)이고 철종 11년(1860)까지 총 42건의 산불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원문을 분석한 산불발생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태종 5년(1405)

- 기록일자 : 1405년 4월 17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
- 산불원인 : 가옥화재
- 내 용

#### <원문>

逍遙山離宮火。山火延燒也。

#### <해설>

이궁(離宮)은 왕이 거동할 때 머무르는 별궁(別宮) 또는 행궁(行宮)으로 소요산에 있는 이궁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요산으로 산불이 이어진 사례이다. 지금의 산림인접 건물 화재가 산불로 이어진 사례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세종 10년(1428)

- 기록일자 : 1428년 7월 21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양강도 갑산
- 산불원인 : 낙뢰
- 내 용

## &lt;원문&gt;

咸吉道敬差官鄭萃復命, 上引見問水災, 對曰: “鏡城官門前有柳樹, 一日忽天昏氣蒸熱, 有一物如布匹, 自空中悠揚而下, 乃火燒樺皮也, 柳樹觸熱死。自咸興至甲山之境, 山上草木盡燒, 人以爲天火。”

## &lt;해설&gt;

일반적으로 여름철 낙뢰에 의한 산불의 경우, 높은 상대습도로 산불위험성이 낮아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지만 갑산의 경계까지 산불이 확산된 점을 미루어보면 여름철 산불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산불원인이 낙뢰였던 점과 산불피해가 컸던 점으로 인해 세종대왕이 직접 해당 경차관을 불러 조정에서 대면보고 받을 정도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으로 추측된다.

## ③ 세종 27년(1445)

- 기록일자 : 1445년 5월 18일
- 산불발생 : 2건
- 발생일자 : 1436년 2월, 1445년 3월 14일
- 발생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 &lt;원문&gt;

慶尙道監司啓: “寧海府治南一百二十步許山麓, 地燒始于丙辰二月, 至壬戌三月而滅, 長二百七十尺, 草木不生。今二月初六日, 野火迎燒, 地燒復發, 長八尺廣四尺, 火焰熾盛, 晝則青烟, 夜則火光, 臭同石硫黃, 雖雨不滅。掘而視之, 土皆赤色。”

## &lt;해설&gt;

영해부는 지금의 경북 영덕군 일대를 말한다. 병진년인 1436년 2월에 발생한 산불이 임술년인 1442년 3월에 까지 지중화로 이어진 산불이 기록되어 6년간 산불이 지속되었던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1445년 3월 14일에 들판에서부터 발화한 산불에 대한 기록 중 석유황의 냄새는 소나무 송진의 파라핀유가 연소될 때 나는 냄새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땅속의 색깔이 붉은 빛으로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지중화의 산불 확산 행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5권 제4호, 2011년

## ④ 성종 6년(1475)

- 기록일자 : 1475년 5월 15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충청남도 서산 금산 송진
- 산불원인 : 수렵입화
- 내 용

## &lt;원문&gt;

司憲府啓: “忠清道兵馬節度使金瑞衡, 獵瑞山地面, 縱火焚禁山, 使國家培養松材盡枯, 火延開心寺焚蕩。且托習陳, 不時徵軍, 累日打獵, 守令支供, 少不如意, 係縛罰辱, 無所不至。其不合方面之任如是, 請遣行臺監察推鞠。且開心寺居僧狀告觀察使成允文, 允文掩匿不鞠。請竝鞠之。” 命遣監察鄭儼, 往鞠之。

## &lt;해설&gt;

충남 서산은 조선시대 재목을 키우는 중요한 소나무밭으로 방목과 벌목을 금하는 금산(禁山)이 많이 있었다. 이에 해당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무단입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한 사례로 이와 관련된 관직자에 대한 문책관련 건의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⑤ 성종 20년(1489)

- 기록일자 : 1489년 4월 14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489년 3월 25일
- 발생장소 : 강원도 양양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 &lt;원문&gt;

江原道觀察使李陸啓: “二月二十四日, 本道山火, 連燒襄陽府居民二百五戶, 洛山寺觀音殿, 杆城鄉校及居民一百二十四戶, 一時皆燒。唯人畜不傷, 而閭閻所儲之穀, 盡爲灰燼。請移納通川田稅以給。” 從之。

## &lt;해설&gt;

강원도 양양지역 산불로 2005년 4월 4일 발생한 양양산불 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낙산사 관음전이 소실된 사례이다.

## ⑥ 중종 2년(1507)

- 기록일자 : 1507년 1월 24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507년 1월 12일
- 발생장소 : 경상남도 고령 중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傳于政院曰：“讀書堂笥子云，夜有赤氣，信有是乎？”回啓曰：“臣等亦聞前月晦日夜，乾方有赤氣如火光，南方雲淡色黃。又聞是日，山火偶發於高嶺，鐘山等處，連燒數里，疑是此火之光也。”

<해설>

밤에 붉은 기운이 일어난 것으로 미루어 야간산불이 발생하였고 산불발생에 대한 개황이 설명되어 있고 몇 리에 걸쳐 산불이 확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다.

⑦ 중종 19년(1524)

- 기록일자 : 1524년 4월 22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강원도 강릉 (대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陵臺山等處山火起，延燒民家二百四十四戶，鏡浦臺官舍亦盡焚，惟廚室不燒。民家牛一，馬一爛死。

<해설>

강릉지역의 기후 특성상 봄철 강한 편서풍이 발생함으로 해안 근처인 경포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미루어 강릉에 촌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해안 인근지역으로부터 약 5 km 떨어진 지역에서 발화가 되었고 민가 피해와 함께 경포대 관사가 소실되어 조정에 보고가 함께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된다.

⑧ 중종 25년(1530)

- 기록일자 : 1530년 6월 9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충청북도 충주 (대립산)
- 산불원인 : 낙뢰
- 내 용

<원문>

忠淸道忠州大林山，天火自起，雜草焚燒。

<해설>

번개불에 의한 산불로 임목피해는 없이 황무지 잡초 지역에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6월 초순의 기후 특성상 습도가 높아지고 산림 연료의 수분함유량이 많아지고 낙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우를 동반하거나 대기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산불로 크게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⑨ 중종 26년(1531)

- 기록일자 : 1531년 6월 8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황해도 은율현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黃海道 殷栗縣，地火自發，延燒周回一百十五尺許。火焰所及，草木之根，盡爲燒燼。

<해설>

지표화가 절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자연발화로 기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연발화 중에서는 이탄층에서의 자연발화 또는 낙뢰에 의한 자연발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황해도 은율현은 이탄층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낙뢰일 경우에는 사료 분석에서 필히 기록을 했었던 점으로 미루어 낙뢰에 의한 자연 발생적인 산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황해도 은율현 산불은 원인 미상의 산불 발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⑩ 중종 33년(1538)

- 기록일자 : 1428년 7월 28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경상도 고성
- 산불원인 : 낙뢰
- 내 용

<원문>

慶尙道固城縣流芳山上西方，黑雲蔽天，雷震驟雨大作，日氣昏暗，有天火，松田焦焚。

<해설>

여름철 낙뢰에 의한 산불로 기록되어 있으나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소나기가 함께 내린 점으로 미루어 피해상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⑪ 명종 5년(1550)

- 기록일자 : 1550년 5월 11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충청남도, 안면도
- 산불원인 : 수렵입화
- 내 용

<원문>

憲府啓曰：“國家兵船漕舫，凡大小營繕所賴者，惟在長山，安眠二串。“上護軍李元祐，爲本道兵使時，因獵失火，

百年培養之木，多致焚燒。此非細事，當具由馳啓，待罪不暇，而反匿不啓。” 答府曰：“李元祐瑞山郡守，推考後罷職，尙未晚也。”

<해설>

꽃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육지로 당시 군사용 선박을 만드는 장소였던 장산과 안면 두 지역에서 사냥을 위해 입화한 사례이며 이에 관련된 관직자 파면에 대한 건의가 기록되어 있다.

⑫ 현종 1년(1660)

- 기록일자 : 1660년 4월 3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강원도, 삼척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原監司朴長遠狀啓：三陟山火，延及民家，赤身脫出者，一百六十餘名，燒死者五名。

<해석>

강원도 삼척산불로 산불 개황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5명의 사망자가 기록된 것으로 보아 민가주변에 산불이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부터 삼척지역은 해안으로부터 약 5km까지 민가가 발달되어 있고 해안까지 산악지역이 발달되어 있는 소나무림 지역으로 산불위험성이 특히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⑬ 현종 7년(1666)

- 기록일자 : 1666년 4월 21일
- 산불발생 : 3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강원도 삼척, 강릉, 양양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狂風大作，三陟民家二百五十戶，江陵民家一百二十七戶，襄陽民家三十八戶，失火燒盡。

<해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바람의 세기에 대한 언급과 함께 민가 피해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삼척산불이 가장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⑭ 현종 13년(1672)

- 기록일자 : 1672년 5월 1일

- 산불발생 : 4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강원도 강릉, 삼척 등 4개 지역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原襄道江陵，三陟等四邑，因山火熾烈，民家延燒者，一千九百餘戶，江陵羽溪倉穀軍器等物，一時燒燼，民人爛死者，六十五人。

<해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중에서 사망자가 65명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기록하였다.

⑮ 숙종 6년(1680)

- 기록일자 : 1680년 4월 5일
- 산불발생 : 5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강원도 통천군 등 5개 지역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通川等五邑狂風大作，山火延燒人家至於五百三十六戶。道臣以聞。

<해설>

지금의 북한 지역인 강원도 통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건조한 봄철 강한 바람에 의해 인근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여 총 536가구가 소실되었다.

⑯ 숙종 23년(1697)

- 기록일자 : 1697년 2월 28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강원도 강릉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陵府大風，山火暴發，延燒大關嶺下民居六十五戶。本道狀聞。

<해설>

강원도 강릉 대관령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65가구가 소실된 사례로 보고일이 2월 28일 인 것으로 미루어 2월중에 발생한 산불로 추정되며 겨울철 산불로서는 피해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⑰ 경종 4년(1724)

- 기록일자 : 1724년 5월 23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함경남도 홍원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咸鏡道洪原縣, 地火迸出, 十餘日不滅, 土黑草枯, 烟氣漫天。

<해설>

산불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일 동안 산불이 지속된 점으로 미루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⑱ 영조 41년(1765)

- 기록일자 : 1765년 4월 24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 산불원인 : 방화
- 내 용

<원문>

全羅道珍島郡, 有松田而居民誤放火延燒, 水使李泓馳啓以聞。上命首犯吳匡一等三人直令本道, 臬示警衆, 校理李性源曰: “人命至重, 而令帥臣結案, 恐有後弊。宜令道臣, 詳覈用法, 爲審慎之道矣。” 上可之。蓋松田無延燒事, 而該水使誤聞而驟啓, 幾致枉殺人命云。

<해설>

전라도 진도군 소나무림에 방화하였다하여 방화자 3명에 대해 효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후 송전에 불탄 일이 없는 것으로 조치되었다. 실제 송전에 대한 산불 기록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방화자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한 내용은 교리(校理) 이성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방화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경우 이를 악용할 여지에 대해 뒷날의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수사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요청한 내용이다.

⑲ 정조 6년(1782)

- 기록일자 : 1782년 4월 6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경상남도 거제 지세포 (봉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備邊司啓言: “統制使狀聞, 巨濟知世浦封山失火, 延燒稚松, 不知爲幾千萬株。請當該守令, 邊將嚴勸, 統制使從重推考。” 教曰: “事未前聞。此而尋常處之, 山無邊松而後已。該帥臣越俸一等, 巨濟府使李達觀, 知世浦萬戶金廷龍論罪, 失之太寬。罷職後, 拿來重勸。”

<해설>

거제 지세포에 큰 불이나 해당 관직에 있는 책임자를 문책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산불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⑳ 정조 7년(1783)

- 기록일자 : 1783년 5월 11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서울 남산
- 산불원인 : 어린이 불장난
- 내 용

<원문>

訓鍊院都正李敬懋上疏曰: 伏聞南山放火人安月城, 有減一律刑配之命。批曰: “律不襯合, 只令訊配。”

<해설>

어린이 불장난에 의한 남산 산불로 임금이 그 죄를 사형에서 귀양으로 감하였던 기록이며 산불 피해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㉑ 정조 7년(1783)

- 기록일자 : 1783년 12월 28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서울 남산
- 산불원인 : 방화
- 내 용

<원문>

時有沃川人鄭潤渙者, 放火于木覓山烽臺近處。兵曹捕問。供稱其祖時雄, 有戊申軍功, 無路上聞, 爲此放火之舉。付刑曹照律。

<해설>

목멱산은 남산의 원래이름이며 벼슬에 진출하지 못했던 자에 의한 방화로 기록된 사례이다.

㉒ 정조 16년(1792)

- 기록일자 : 1792년 6월 6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서울 남산
- 산불원인 : 방화
- 내 용

<원문>

兵曹捕南山蠶頭下放火人以聞, 命於習陣日回示, 絕島爲奴。

<해설>

남산의 봉수대가 있었던 잠두봉에서 방화에 의해 산불이 난 사례로 진법을 연습하던 군사훈련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보이고 방화한 자를 종으로 신분계급을 강등시켜 처벌한 사례이다.

### ㉓ 순조 4년(1804)

- 기록일자 : 1804년 4월 21일
- 산불발생 : 6건
- 발생일자 : 1804년 4월 12일
- 발생장소 : 강원도 삼척 등 6 지역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原監司申獻朝, 以本月初三日, 獐風大作, 山火延熾, 自三陟, 江陵, 襄陽, 杆城, 高城, 至于通川, 沿海六邑, 被燒民家二千六百餘戶, 院宇三處, 寺刹六處, 倉舍一處, 各穀六百石零, 船十二隻, 鹽盆二十七坐, 燒死六十一人。鱗次馳啓。

<해설>

역사문헌에 기록된 산불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사망자가 61명에 달하고 민가피해 또한 2,600 주택이 소실되는 등 지금 북한 강원도 통천에서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최근 2000년 동해안 산불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 발생 또한 4월 초순부터 한 달간 지속된 사례로 기록되었다. 또한 배 12척이 소실된 점을 미루어 해안까지 산불이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 ㉔ 순조 4년(1804)

- 기록일자 : 1804년 4월 24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804년 4월 12일
- 발생장소 : 함경남도 안변부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咸鏡監司李翊模以: “本月初三日大風, 山火延熾, 安邊

府北倉及各穀二千六十石零, 民家二百三十三戶, 鹽盆七坐·僧庵六處, 竝爲被燒,” 啓。

<해설>

함경남도 안변부에서 발생했던 산불로 산림피해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고 민가 및 곡식창고 등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 기록만이 남아 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㉕ 철종 11년(1860)

- 기록일자 : 1860년 5월 7일
- 산불발생 : 3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강원도 양양, 통천, 간성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原監司金始淵, 以襄陽府燒戶五百五十一戶, 通川郡燒戶四百七十二戶, 杆城郡燒戶四百八十六戶, 啓, 伊川府使南鍾順, 慰諭使差下, 使之馳進慰諭。

<해설>

강원 동해안 지역인 통천에서 간성, 양양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전체 민가피해가 1,509호가 소실된 사례로 인명피해에 대한 기록은 없다. 산불 피해가 컸던 것에 비해 지역 관리 책임자 문책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오히려 위유사로 하여금 민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 2.2 승정원일기

개요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출납과 제반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로 현재 인조 원년(1623) 3월부터 순종 융희 4년(1910) 8월까지 기록이 남겨져 있다. 승정원일기는 모두 3,243책의 필사본이며 승선원일기(4책), 궁내부일기(5책), 비서감일기(41책), 비서원일기(115책), 규장각일기(33책)를 포함하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과 일괄의 난으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이후 영조 20년(1744) 승정원 화재와 고종 25년(1888) 화재로 소실되어 선조 이전과 이후 기록에서도 많은 부분이 현존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국정 전반에 걸친 매일의 일기를 날짜순으로 망라한 것으로 가장 자세한 기본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2001년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국보 제303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산불기록

현존하는 승정원 기록 중 조선왕조실록과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면 총 13건의 산불 발생이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원문을 분석한 산불발생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조 16년(1638)

- 기록일자 : 1638년 4월 28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638년 4월 26일
- 발생장소 : 서울, 남산
- 산불원인 : 실화
- 내 용

<원문>

行大司諫崔惠吉, 正言金振啓曰: “再昨日南山城外, 失火延燒山上, 而監役缺 常時不能用意禁斷, 至於白晝京山火災如此, 缺請當該四山監役, 當該部官竝罷職。”

<고찰>

산불예방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사산감역과 해당 부관의 파직을 요청한 기록이 있으며 산불 피해 내역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② 인조 21년(1643)

- 기록일자 : 1643년 5월 13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643년 4월 11일
- 발생장소 : 강원도, 양양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原監司狀啓, 二月二十三日, 狂風猝作, 山火發延, 元巖一驛十五家, 一時燒盡, 事係變異事。

<해설>

양양 원암역은 지금의 고성군 토성면에 속해있다. 산불로 15호 민가 피해가 기록되어 있어 해안 근처 산림이 소실되었던지 아니면 산불이 민가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인조 21년(1643)

- 기록일자 : 1643년 5월 13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643년 4월 20일
- 발생장소 : 강원도 양양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原監司狀啓, 襄陽呈, 以三月初二日, 大風猝起, 掀天動地, 氣勢瘳怪, 百尺之松, 盡爲拔根, 屋瓦皆飛, 人不立行. 初三日, 嶺上累十里外, 有一派山火, 瞬息之間, 飛到平郊, 烈火翻空, 烟焰漲天, 火塊飛舞, 着物輒燒, 境內民家五十坐, 盡爲燒盡。

<해설>

큰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의 바람은 Beaufort 풍력 계급에 비교하면 풍속 25~28 m/s의 태풍수준의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화가 발생하여 민가에도 화재로 이어져 낙산사 경내에 까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④ 현종 원년(1660)

- 기록일자 : 1660년 4월 12일
- 산불발생 : 2건
- 발생일자 : 1660년 3월 22일
- 발생장소 : 강원도 강릉, 통천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原監司書目, 江陵等呈, 以二月十二日大風, 江陵民家二十五戶, 通川民家二十六戶, 山火延燒事。

<해설>

강원도 강릉과 통천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비슷한 시기에 산불이 발생되어 피해상황이 보고되었고 민가 피해에 대한 기록과 함께 바람의 정도에 대해 정성적인 기록이 되어 있다. 사람들의 조사에서 큰 바람은 일반적으로 최대풍속 약 15 m/s 정도의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센 바람(5 m/s) > 강한 바람(10 m/s) > 큰 바람(15 m/s) > 광풍(20 m/s) >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바람(25 m/s 이상)으로 조사된 바 있다.

⑤ 현종 원년(1660)

- 기록일자 : 1660년 4월 22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함경남도 안변부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咸鏡監司書目, 安邊呈, 以上道·鶴浦兩社民人六十餘家, 山火延燒, 人物四人致死, 牛馬多斃, 災患非常事。

<해설>

조선시대 함경도에 발생한 산불 중에서 유일하게 사

망자가 기록된 산불로 민가 피해에 비해 사망자와 가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산불 피해자가 인구 밀집지역에 발생하여 피해가 컸던 것으로 사료된다.

⑥ 현종 원년(1660)

- 기록일자 : 1660년 4월 25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660년 3월 22일
- 발생장소 : 강원도 간성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江原監司書目, 杆城呈, 以二月十二日大風, 山火延燒民家八戶, 燒死者一人。

<해설>

큰바람(풍속 약 15 m/s 이상)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되어 민가 피해와 함께 1명이 사망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⑦ 현종 9년(1668)

- 기록일자 : 1668년 5월 3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서울, 삼각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引見時, 領議政鄭太和所啓, 三角山之火, 延燒累日不滅, 所見極爲驚駭 其被燒之木, 令軍務衙門取用。

<고찰>

지금의 서울 북한산인 삼각산에 불이난 사례로 조선시대 문헌 중 불탄 나무를 군사용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기록된 첫 문헌으로 평가 된다. 이는 현재 산불로 인해 불탄 나무를 산복비탈면의 편책공(編冊工)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이 과거 조선시대에도 불탄 나무를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⑧ 현종 11년(1670)

- 기록일자 : 1670년 4월 17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함경남도 경성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咸鏡監司書目, 鏡城呈, 以大風山火, 延燒家舍, 居民朴

宗吉妻, 卞女貴合燒死事。

<해설>

큰바람(풍속 약 15 m/s 이상)에 의한 산불확산으로 사망자가 발생과 민가피해가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자 수와 민가의 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⑨ 영조 17년(1741)

- 기록일자 : 1741년 4월 7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741년 2월중
- 발생장소 : 전라남도 광양 송전
- 산불원인 : 실화
- 내 용

<원문>

全羅左水使趙東夏狀啓內, 去十二月光陽松田兩處失火, 藍色·山直, 捉來推問。

<해설>

지난 12월이라 표기한 부분은 기록날짜를 기준으로 영조 17년(1741) 양력 2월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전은 대부분 국가에서 군사용 또는 건축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소나무 밭이므로 이를 관리하던 관직을 맡고 있는 자에 대해 추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나 사후 그 죄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⑩ 정조 13년(1789)

- 기록일자 : 1789년 5월 14일
- 산불발생 : 3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경북 영일 진전, 경남 밀양 고예, 경남 양산 내포
- 산불원인 : 실화
- 내 용

<원문>

慶尙前左水使南志默狀啓, 則以爲迎日·密陽·梁山三邑封山失火處, 詳細摘奸, 則迎日陳田山火枯中小松, 合爲五百九十五株, 稚松枯損, 爲一千五十七株, 密陽古曳山火枯中小松, 合爲一百十二株, 稚毛松枯損, 數甚夥然, 梁山內浦山火枯中小松, 合爲四百八十六株, 稚毛松枯損, 其數夥多。

<해설>

조선시대 문헌 중 산림피해에 대해 가장 상세히 조사되어 기록된 것으로 2009년 우리나라 산림의 평균 밀도 약 1,820본/ha에 적용하면 영일 진전 약 0.6 ha, 밀양 0.1 ha, 양산 내포 약 0.3 ha의 산림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불에 타서 소실된 나무를 보고 한 점으로 미루어 수관화 피해를 입었던 나무로 판단되며 지표화 지역까지 포함하며 그 피해면적이 더욱 넓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2.3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개요

비변사등록은 조선시대 중기이후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비변사에서 처리한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승정원일기”와 함께 실록보다 앞서서 기본적인 역사자료이다. 비변사등록은 1년 1책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건이 많을 때에는 2책 또는 3책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현존하는 비변사등록은 광해군 9년(1617)~고종 29년(1892) 사이의 273책이며 이후 고종 2년(1865) 비변사가 폐지되었으나 의정부에서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사무를 담당하여 “의정부등록”으로 작성되었다. 본 장에서의 비변사등록에서는 의정부등록을 포함하여 문헌을 조사하였다.

#### 산불기록

현존하는 비변사등록에 기록된 산불은 4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3건이 변산산불이 기록되어 있다. 원문을 분석한 산불발생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숙종 8년(1682)

- 기록일자 : 1682년 7월 7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전라북도 변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 <원문>

領事閣所啓, 邊山出火, 延燒處, 幾至四十里, 體大可合船材, 被燒無餘。

#### <해설>

전라도 부안 변산 산불은 조선시대 역사기록서 중에 산불확산 길이가 정확히 기록된 것으로 약 16 km까지 확산된 대형산불로 전라도 지역 송전(松田)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명피해에 대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않다.

#### ② 숙종 16년(1690)

- 기록일자 : 1690년 6월 2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690년 5월 31일
- 발생장소 : 전라북도 변산
- 산불원인 : 실화
- 내 용

#### <원문>

今四月二十三日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左議政睦所啓, 全羅監司狀啓, “則邊山失火, 松木燒燬, 至於二萬餘條。”

#### <해설>

현재 우리나라 소나무 숲의 일반적인 밀도가 약 1,000 본/ha에 비추어 보면 약 20 ha의 산림이 피해가 입은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서 피해지역이 지금의 임목피해를 구분하는 수관화 피해목, 지표화 피해목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에 타서 소실된 나무를 보고한 점으로 미루어 수관화 피해를 입었던 나무로 판단되며 지표화 지역까지 포함하여 그 피해면적이 더욱 넓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숙종 25년(1699)

- 기록일자 : 1699년 7월 17일
- 산불발생 : 3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전라북도 변산
- 산불원인 : 실화
- 내 용

#### <원문>

左議政崔曰: 今此邊山失火, 兩月之間, 至於三次失火, 而老郎金所犯, 則周回至於三四十里, 體大之松數萬株, 中松·種松, 不可勝記云。

#### <해설>

1699년 변산지역에 발생한 산불이 3건이 있었으며 이중 나이가 많은 김씨 성을 가진 자가 불을 낸 것으로 약 12~16 km까지 산불이 번진 것으로 소나무 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④ 숙종 28년(1702)

- 기록일자 : 1702년 5월 8일
- 산불발생 : 2건
- 발생일자 : 미기록
- 발생장소 : 경상도 백운산
- 산불원인 : 실화, 논밭두렁소각
- 내 용

#### <원문>

慶尙左水使黃震文狀啓, 白雲山失火, 則不但與邊山有異, 且是十三歲兒故, 亦爲他道定配矣, 今此趙貴男所生,

則只是陳田燒草時，偶然失火，以致延及則如故放火者有異。

<해설>

경상도 백운산에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중 어린이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는 죄를 물어 13세 어린이는 다른 도로 유배를 보냈고 논밭두렁소각에 의한 실화의 경우에는 방화와 다르게 구분하여 처리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2.4 각부청의서존안

개요

각부청의서존안은 조선시대 19~20세기 초, 건양원년인 1896년부터 광무 8년인 1904년 동안 9년간 각 부처에서 조선시대에 최고행정기관인 의정부로 접수된 모든 청의서를 엮어 낱썩순이 아닌 왕의 재가순으로 편철한 문서이다. 건양은 조선 고종 33년인 1896년 김홍집내각에 의해 갑오개혁(1895년 11월 17일)이 이루어지면서 제정한 조선의 연호로 이듬해인 1897년 연호를 광무로 바뀌었다. 시대적으로 국제적인 대변혁과 조선시대 내부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고 외세에 대한 자주독립국임을 천명하기 위한 배경이 뒷받침되어 있다. 각부청의서존안 문서의 주요 내용은 법령 및 조치사항, 예산청구 등의 관련 사항이 주를 이룬다. 또한 각부청의서존안은 우리나라 양력 사용이 시작된 1897년부터 모든 기록날짜를 양력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산불기록

각부청의서존안에 기록된 산불은 1건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종 36년 (1899)

- 기록일자 : 1899년 7월 14일
- 산불발생 : 1건

- 발생일자 : 1899년 7월 12일
- 발생장소 : 강원도 평창 오대산
- 산불원인 : 원인미상
- 내 용

<원문>

本月十二日 内部 第一百二十九號 照會를 接準호은즉 內開 江原道觀察使 趙鍾弼의 第一百十三號 報告書를 接準호은즉 江陵五臺山에 山火가 延燒호와 璿源閣及史庫가 極爲悶慮이온디 附近居及山內僧徒 共一百五十人 이 竝力撲滅하였다.

<해설>

연구에 활용한 조선시대 문헌 중에서는 진화인력에 대해 기술한 첫 문헌으로 여름철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조선시대 산불특성 분석

3.1 왕조별 산불현황

3.1.1 산불 발생

조선시대 역사서에 기록된 산불발생은 총 63건이 기록되었다. 이중 왕조별 산불현황에서 산불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Figur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현종(14건) > 숙종(13건) > 정조, 순조(7건) > 중종(5건) > 세종, 인조, 철종(3건) > 성종, 영조(2건) > 태종, 명종, 경종, 고종(1건) 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순조 4년(1804년), 한 해 동안 7건으로 가장 많은 산불이 기록되었고 숙종 > 현종 > 중종 > 정조 > 세종, 성종, 인조 > 태종, 명종, 경종, 순조, 철종, 고종의 순으로 산불발생 기록이 많은 년도로 기록되었다.

원인별

Figure 2의 산불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총 63건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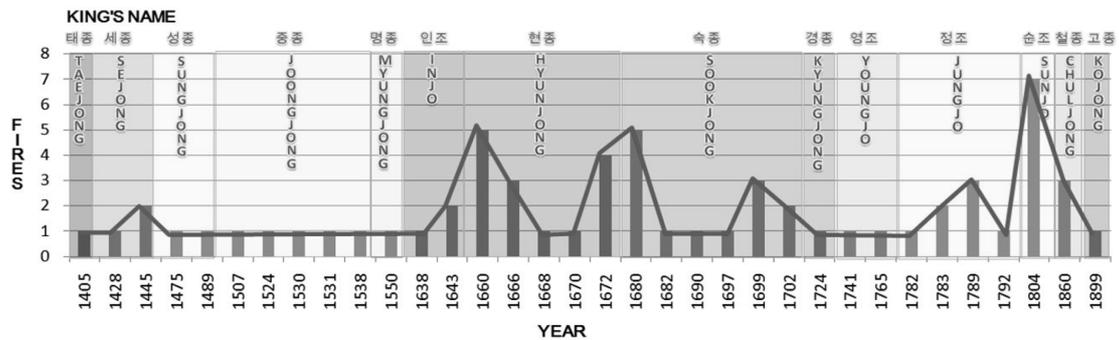


Figure 1. Forest fires in Chosu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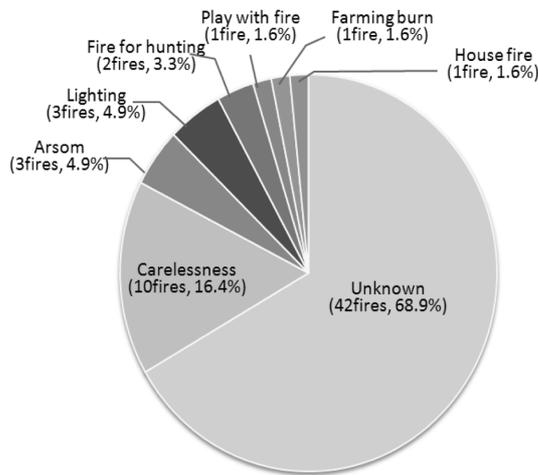


Figure 2. Cause of forest fire in Chosun dynasty.

록에서 산불발생 원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건수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이후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이 10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방화에 의한 산불과 여름철 낙뢰에 의한 산불이 각각 3건으로 기록되었고 군대에서 사냥을 위해 불을 놓은 사례가 2건 기록되어 있고 기타 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소각, 가옥화재에 의한 산불이 각각 1건씩 기록되어 있다.

시기별

조선시대 산불 발생 기록에서 산불이 발생한 일자를 기록한 내용은 전체 63건의 산불발생 기록 중에서 19건만이 정확한 산불발생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Table 1은 실제 산불발생 일자와 함께 산불발생이 기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기록된 날짜를 함께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분석 자료는 실제 산불발생일자와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Table 1에서 정리한 계절별 산불발생은 봄철(46건, 73%) > 여름철(11건, 17.5%) > 겨울철(6건, 9.5%) > 가을철(0건, 0%)로 봄철기간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조심기간인 봄철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에 발생한 산불발생은 51건으로 전체 63건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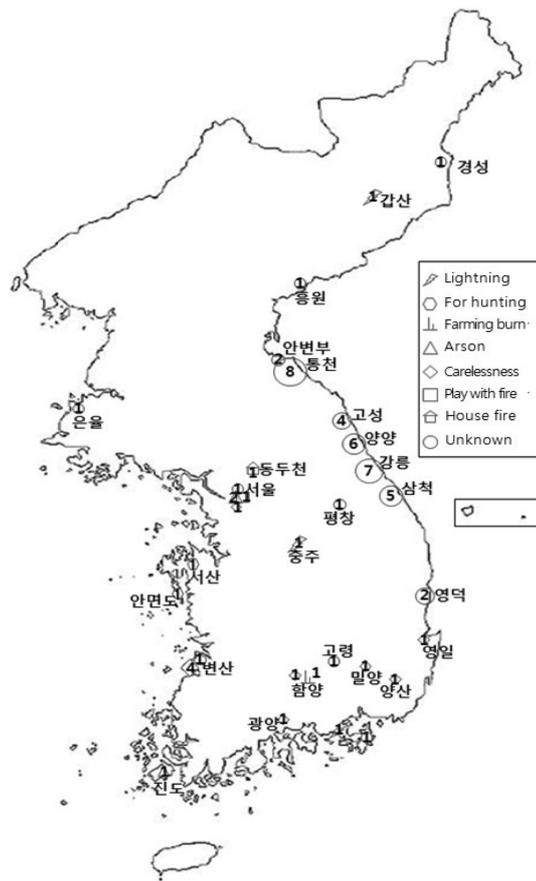


Figure 3. Distribution of forest fires in Chosun dynas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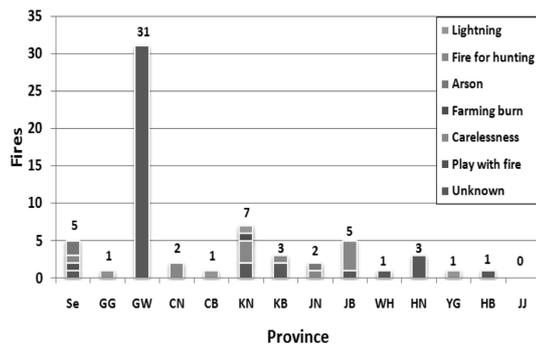


Figure 4. Forest fires and causes in each region.

Table 1. The Number of Fire in Every Month

Month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Fires	1	3	5	26	16	4	7	-	-	-	-	1

여름철 산불은 낙뢰로 인한 산불발생의 특이성으로 인해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2월과 1월 겨울철에도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지역별 조선시대 산불발생 분포는 Figure 3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역(38건) > 서해권(9건) > 서울·중부권(8건) > 경남 남해안권(8건)으로 동해안 지역이 전체 산불의 약 60%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서 충남의 경우, 수렵을 위한 입화가 2건 기록되었다. 서울의 경우, 남산에서 발생한 산불 4건과 지금의 북한산인 삼각산 1건이 기록되었다.

### 3.2 산불 피해

조선시대 역사기록서에 나타난 최대 산불은 순조 4년(1804)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나타났다. 이 산불에서 민가 2,600호 뿐만 아니라 원우(院宇) 3곳, 사찰 6곳, 창사(倉舍) 1곳, 각종 곡식 600 석영(石零), 배 12척, 염분(鹽盆) 27좌(坐)가 소실되고 사망자 61명을 기록되었다. 당시 순조는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조사와 함께 이재민 구제를 위해 교리(校理) 홍석주(洪奭周)를 어사로 임명해 파견하였다.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산불은 현종 13년(1672)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밖에 성종 20년(1489), 양양 산불로 민가 20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殿)이 피해를 입었고 중종 19년(1524), 강릉 산불로 강릉 대산(臺山) 등의 민가 244호와 경포대(鏡浦臺) 관사(官舍)가 피해를 입었으며 숙종 23년(1697) 강릉 산불로 인해 대관령 아래 민가 65호가 소실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 3.3 처벌

조선시대 역사기록서에는 산불 방화자 및 실화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자에 대한 처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방화자에 대해서는 효시, 신분강등 등의 엄한 처벌이 기록되어 있으며 실화자의 경우에는 방화자보다는 경감된 유배와 같은 처벌이 기록되어 있다. 산불발생지역의 해당 관직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파직 등의 문책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관리책임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경계하는 기록도 함께 남겨져 있다.

## 4.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역사기록서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등록’, ‘각부청의사존안’ 등 4개 문헌에 대해 산불 기록을 조사하였다. 기록 조사에 사용된 주요 검색어는 ‘山火’, ‘火’, ‘松田’, ‘封山’,

‘禁山’, ‘放火’ 등의 단어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역사기록서에서 총 63건의 산불기록을 발견하였다. 63건의 산불기록에서 현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낙뢰에 의한 산불기록과 지중화, 자연발화 등도 기록되어 있어 인위적인 산불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비록 발생빈도는 적었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산불발생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이 특이하다.

또한 이번 산불발생기록을 통하여 조선시대에는 당시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병선 등, 배를 건조할 때 재료로 소나무가 주로 쓰였는데 국가자원인 송전에 불이 난 사례에 대한 처벌은 관련자(지방관, 산지기 등)들을 감봉처분 또는 파직 후 형벌을 가하고 지방관을 추문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정도로 당시 소나무무림에 대한 보호에 조정에서 얼마나 힘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대형산불과 유사한 규모의 산불이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고 산불발생위험기간 또한 현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에서 방화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았던 점은 당시에도 수도권에 역시 인구가 밀집되었던 점과 소수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산불발생시기에 대한 분석 자료는 산불발생일자 기록되지 않은 산불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관련 문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발생일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조선시대 역사기록서에 대한 추가 번역 작업이 완료되면 더 많은 산불 기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결 론

본 연구에 활용된 역사기록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등록’, ‘각부청의사존안’ 등 4개 문헌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산불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다.

첫째, 최대 산불피해 기록은 순조 4년(1804)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사망자 61명, 민가 2,600호가 소실되었다. 또한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불은 현종 13년(1672)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65명이 사망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둘째, 계절별 산불발생은 봄철(46건, 73%) > 여름철(11건, 17.5%) > 겨울철(6건, 9.5%) > 가을철(0건, 0%)로 봄철기간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4-5월로 현재의 산불위험시기와 유사하다.

셋째, 산불발생 원인은 원인미상(42건) > 실화(10건)

> 방화, 낙뢰(각 3건) > 수렵입화(2건) > 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소각, 가옥화재(각 1건)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산불발생 건수가 많은 지역은 동해안권역(39건) > 서해권역(9건) > 서울·중부권(8건) > 경남 남해안권(8건)으로 동해안 지역산불이 56%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산불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방화자 및 실화자에 대해서는 유배, 관직박탈, 효시 등의 처벌기록과 관리지역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또한 산불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산불발생 기간 및 지역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사기록서 추가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기록의 산불사례수집을 통한 특성 분석과 함께 조선시대 산불예방, 진화 등에 관한 산불방지 대책 정책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 국역비변사등록, <http://db.history.go.kr/>.
3. 승정원일기, <http://db.itkc.or.kr/>.
4. 철종행장, <http://db.itkc.or.kr/>.
5. 윤선용, “강원도 강릉군 오대산에 발생한 화재에 사고를 지킨 승도(僧徒)와 민인(民人)들에게 상금을 예산의 지출해 달라는 청의서 제 112호”. 각부청의서존안 제11책 68장 a면(1899).
6. 塩田正洪. “조선산림사료 제1집”, p. 705(1934).
7.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소개”, <http://sillok.history.go.kr/>.
8. 산림청, “2010년 임업통계년보”, 제40호, p. 494(2010).
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조선전기 도성 사산(四山)의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집 제40집, pp. 453-485(2010).